

'선 이혼 후 로맨스?' ...권상우·이정현·이종혁 '현실 케미'

영화 '두번 할까요' 헤어진 부부 재회 그려 '이혼식'이라는 독특한 소재 돋보이는 작품

1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두번 할까요' (박용집 감독)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연 배우 권상우, 이정현, 이종혁과 박용집 감독이 참석했다.

'두번 할까요'는 이혼까지 치르고 헤어진 부부가 재회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이날 권상우는 결혼 생활이 자신의 연기에 도움이 됐다며 "연상이든 연하든 아내의 항상 어렵다. 조심해야 하고 도자기 같고 깨지면 안될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주위 셀러리맨의 정서를 담은 캐릭터다. 이혼 후 싱글 라이프를 꿈꾸는데 눈앞에 나타난 전처 때문에 항상 (전처 역)이정현

의 표정과 상태에 따라 이혼 후에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남자"라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권상우는 극중 아내 선영과 말도 안 되는 이혼사까지 치러가며 요란하게 헤어진 후 꿈꿔왔던 싱글라이프에 임성하지만, 선영이 옛 친구와 함께 다시 나타나면서 혼란에 빠지는 남자 현우 역을 맡았다.

이어 이정현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싱글라이프를 즐기다 우연한 사건으로 상철의 구애를 받게 되는 선영 역을, 이종혁이 현우의 친구이자 얼굴 되고 능력 되지만 로맨스만 안 되는 '연애호구' 상철 역을 맡았다.

이정현은 이번 영화에서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을 연기했다. 그는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시나리오가 들

어오면 어렵고 연민을 자극하는, 연기력을 요하는 역할만 들어와서 힘들었다"며 "(로맨틱 코미디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장르였다. 긴장되고 떨린다. 코믹 로맨스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행인 것은 권상우가 그런 연기의 달인이고, 이종혁씨 그런 연기를 잘 해주셔서 촬영하면서 즐겁게 했다"고 했다.

권상우와 이종혁의 인연은 남다르다. 15년 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함께 했던 사이인 것. 권상우는 "그때 각별했던 게 형도 신인이고, 나도 신인인데 우리가 그 지방에서 거의 매일 붙어서 액션 연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 봐 와서 그렇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작품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이종혁에게 애뜻함을 드러냈다.

실제 영화에는 '말죽거리 잔혹사'를 오마주한 장면이 등장한다. 권상우는 "영화를 보시면 예고편을 보셨지만 앵글까지 그대로 재연해 찍은 장면이 있다. 옥상신은 결국 올라가는데 제일 더

운 어른이 발일하다 쓰러지는 날씨에 올라가 찍었다"고 귀띔했다.

세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현장의 분위기로 전달됐다. 권상우는 이정현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셀 것 같았다. 1등 신봉감을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면서 아내 "현모양처"라고 칭찬했다.

영화는 '이혼식'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배우들은 '이혼식' 설정이 어색할까 걱정했으나 영화를 찍으면서 납득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상우는 "촬영하면서 가장 고민 많이 한 게 이혼식이라는 설정이 관객들에게 이혼이라는 소재를 다뤄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이라는 소재를 다뤄서 시작할 것 세 배우는 일상에서는 배우자, 자녀들과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다. 이정현은 영화에서 이혼식 드레스 피팅을



배우 이정현(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두번 할까요'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권상우, 이종혁(오른쪽) 사이에서 웃음보를 터뜨리고 있다.

할 때만 해도 결혼 생각이 없었다면서 "촬영하면서 두 캐릭터 남자를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권상우 역시 아내 손태영에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영화를 통해 결혼, 연애에 대

해 달라진 생각을 묻는 질문에 "내가 이혼을 영화에서 해보지 현실에서 하겠느냐. 나는 '포에버' 손태영과 잘 살 거다. 여보 알지?"라고 답했다.

영화 '두번 할까요'는 10월 17일 개봉한다.

'한끼줍쇼' 엑스원 김우석 "과거 '스타킹' 출연했다" 강호동 '깜짝'

녹화 당시 데뷔 2일차 불구 인지도 ↑...오늘 밤 방송



김요한과 김우석이 데뷔 후 첫 예능에 도전했다. 18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한끼줍쇼'에 대해 아이돌 엑스원(X1)의 멤버 김요한과 김우석이 밥동무로 출연해 강남구 압구정동

에서 한끼에 도전한다.

최근 진행된 '한끼줍쇼' 녹화 당시 김요한과 김우석은 엑스원(X1) 데뷔 2일차임에도 두사람을 알아보는 국내의 팬들로 인해 압구정 거리를 들쭉이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벨 누르는 집마다 학생부터 어머니 세대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높은 인지도를 자랑했다. 그런가 하면 한 주민은 "여긴 요한이, 저긴 우석이"라며 이름까지 언급해 빠른 성공을 기대하게 했다. 이에 이경규는 "인지도 쟁이다"라며 엑스원의 인기를 놀라워했다.

한편 강호동은 김요한을 '내아동(내가 아끼는 동생)'이라고 말하며 이겼다. 태권도 선수 출신 체육 동생과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한 것. 이어 김우석에게는 "얼굴재벌이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들의 출연에 기분이 한껏 좋

아진 강호동은 두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에 김우석은 "원래 데뷔를 했었다. (강호동을) 한 번 만난 적 있었다"고 말해 강호동을 놀라게 했다. 김우석은 '엑스원'으로 데뷔하기 전 보이그룹 '업텐션'으로 먼저 가요계에 데뷔했던 것. 이어 김우석이 "스타킹에서..."라고 덧붙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강호동은 "다.. 만났지..?"라며 김우석에게 약속을 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호동은 또 한명의 스타킹 피해자가 나올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엑스원(X1)의 멤버 김요한과 김우석의 한끼 도전은 18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한끼줍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정국 거제도 열애설 "명백히 사실 아냐"

해쉬스원 '억울'

그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장기 휴가 당시 사진으로 열애설에 휩싸여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당사 아티스트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알렸다.

이어 "멤버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숍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에 타투숍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고 그 내용이 왜곡되어 알려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되어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 속 인물이 정국이 아닌 래퍼 해쉬스원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해쉬스원은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사진을 올린 뒤 "이거 저 아니에요.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서"라고 해명했으나, 곧 글을 삭제했다.

이후 방탄소년단 정국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해쉬스원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해쉬스원은 이 글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캡처해 올리며 "진짜 역경이다"라며 "토할 것 같아"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